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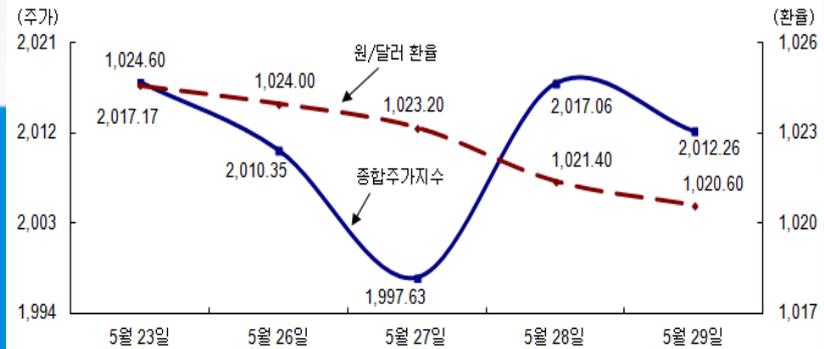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여성 일자리의 업종별 적합도 분석과 시사점
-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가장 우수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23~5.29)

Better than
the Best!



주가	환율	금리	유가
-3.34	-3.60	-0.04	-0.61
2012.26 (종합주가지수)	1020.60 (원/달러)	2.81 (국고채 3년물)	106.33 (두바이油)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여성 일자리의 업종별 적합도 분석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9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고 승 연 연구위원 (2072-6308, ye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여성 일자리의 업종별 적합도 분석과 시사점

■ '양' 위주의 정책으로 일자리 '질'의 개선 여부는 불확실

최근 고용률이 호전되고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일자리 '질'의 개선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 역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 일자리 질이 다소 우려되고 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은 고용률 향상의 중요한 견인차로서, 일자리의 양과 질에 대한 균형있는 고려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률 향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에 기반하여 양적 적합도(충분성)와 질적 적합도(안정성, '공정성', '균형성', '성평등성')를 중심으로 산업별 여성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적합도를 분석하여 향후 여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산업별 여성 일자리의 특성 비교

1) 양적 적합도(충분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양적 적합도의 4개 측정지표 중 산업별 인력부족률을 제외하고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산업별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중 여성비중 모두에서 최고 수준이다. 인력부족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높다.

2) 질적 적합도- ①안정성: 근속년수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평균연령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가장 우수하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높았다. 종합하면 '안정성'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수준이다. ②공정성: '금융 및 보험업'은 급여의 절대적 수준 및 시간당 급여 수준이 최고이며,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관리자 비중이 높다. 종합하면, '교육 서비스업'의 일자리 '공정성'이 최고이다. ③균형성: '부동산 및 임대업'은 여성 취업자 중 유배우자 비중이 72.3%로 가장 높고 '육아+가사'로 이직(4.3%)하는 경우도 가장 낮아 일자리의 '균형성'이 가장 뛰어난 업종이다. ④성평등성: 남녀평등 측면에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고수준이며,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상위권에 속한다.

■ 산업별 여성 일자리의 적합도 평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취업자 증감률(62.8%)이 높고,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이 81.1%로 높아 양적 적합도가 최고이며, '건설업'은 최하위이다. 질적 적합도가 최고인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질적 적합도의 4개 차원 중 특히 '성평등성'과 '균형성'이 최고 수준이다.

(양적 적합도 高/질적 적합도 高)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해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등은 여성 일자리로서 적합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다.

< 여성 일자리의 업종별 양적 및 질적 적합도 비교 >



- 주 : 1. 양적 적합도(충분성) 산업별 여성 여성 취업자 비중 증감을 취업자 중 여성비중 인력부족률 종합
 2. 질적 적합도-안정성, 공정성, 균형성, 성평등성 종합.
 3. 4분면의 기준은 각 적합도 차원의 평균값(5점)임.
 4. *2013년 총 여성취업자 10,494명 중 각 분면의 여성 취업자 비중임.

(양적 적합도 高/질적 적합도 低)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양적으로 일자리의 '충분성'은 높으나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의 '안정성'이 특히 취약하다.

(양적 적합도 低/질적 적합도 高)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양적 적합도는 낮으나 '공정성'을 제외한 질적 적합도가 매우 높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질적인 '공정성'만 높은 특징이 있다

(양적 적합도 低/질적 적합도 低)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여성 일자리로서 적합도가 가장 낮은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고학력 전문직 업종이 해당된다.

■ 시사점

업종별 여성 일자리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종별로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향은 첫째, **성별 편견 해소로 여성 일자리의 진입장벽을 낮추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전 산업에서 '취업자 중 여성 비중 50%'를 목표로 하여, 산업별 여성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둘째, **일자리의 질적 편차의 축소다.** 여성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일자리간 질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친화적 일자리의 재정 의가 필요하다.** 여성 일자리의 일정한 질적 수준과 성평등성이 전제되지 않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무의미하다. 넷째, **여성 일자리로서 고학력 전문직 업종을 재점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이 저학력 저숙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데, 질적으로 취약한 고학력 전문직 업종의 여성 취업자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저숙련 업종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양적으로 충분하나 질적으로 취약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 대해 일자리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1. 논의 배경

- ‘양’ 위주의 일자리 정책으로 일자리 ‘질’의 개선 여부는 불확실
- 정부의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최근 고용률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일자리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일자리 ‘질’의 개선 여부는 불확실함
 - 지난달(4월) 고용률이 65.4%를 기록해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고용상황이 크게 호전됨
 - 하지만 최근의 고용정책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일자리 ‘양’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자리의 ‘질’의 문제가 간과될 가능성이 있음
-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임
 -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48.8%로 전년(48.4%)에 비해 소폭 상승함
 - 한편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25.3%로 전년(21.0%)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성(11.1%)과의 차이도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함
 - 여성 고용률의 저조한 증가와 달리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일제 근로자 중 일부가 시간제 근로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 고용률 향상의 중요한 견인차로서 여성 일자리에 대한 관심 확대 및 일자리의 양과 질의 균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용률 향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 시간제 일자리를 넘어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성 일자리의 강·약점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요구됨
 - 이에 본고는 여성 일자리의 양적·질적 특성에 대한 산업별 비교분석을 통해 여성 일자리의 적합도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여성 일자리의 적합도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에 기반하여 양적 적합도(일자리 ‘충분성’)와 질적 적합도(‘안정성’, ‘공정성’, ‘균형성’, ‘성평등성’)로 분석하고자 함
-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는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옴

- **괜찮은 일자리**는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환경 속에서 남녀에게 **괜찮고(Decent)** 생산적인(Productive) 일(Work)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노동권 관점에서 고용의 기회, 평등한 대우, 사회참여 보장 등 일자리의 수준을 측정하는 개념임
 - 일반적인 노동자 및 여성이나 중고령층과 같이 노동시장의 진입·퇴출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고용문제를 개선하는 기준을 제공함
- 본 고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지표에 기반하여 **일자리의 양적·질적 적합도를 정의하고 산업별 여성 일자리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 본 고에서 일자리의 적합도는 일자리의 양적 및 질적인 수준을 포괄하여 업종별 상대평가로 분석함
 - 일자리의 양적 적합도는 일자리의 ‘충분성’으로, 질적 적합도는 일자리의 ‘안정성’, ‘공정성’, ‘균형성’, ‘성평등성’의 4개 차원으로, 총 11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함

< ILO ‘괜찮은 일자리’ 지표와 본 고의 분석 틀 >

ILO 지표 ²⁾	고용기회	부적합한 노동, 일의 안정성	적절한 임금·생산적 노동, 적절한 노동시간	일가정양립	고용에 있어서의 공평성
	↓	↓	↓	↓	↓
본 고의 분석차원	일자리의 ‘충분성’	일자리의 ‘안정성’	일자리의 ‘공정성’	일자리의 ‘균형성’	일자리의 ‘성평등성’
개념	진입장벽이 낮고 일자리 수요가 충분한가	고용형태, 연령,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가	근로시간의 적절성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 나아가 자아실현의 기회가 주어지는가	결혼 및 육아와 일이 양립될 수 있는가	남녀가 일자리에서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는가
분석 지표 ³⁾	①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비중 ②여성취업자의 산업별 증감률 ③취업자 중 여성 비율 ④평균 인력부족률	⑤취업자 평균연령 ⑥근속 기간 ⑦상용직근로자 비중	⑧시간당임금 ⑨관리자 비중	⑩취업자 중 유배우자 비율 ⑪이직사유 중 ‘육아+가사’ 비중	‘안정성’ 지표의 남녀 차이 ‘공정성’ 지표의 남녀 차이
적합도 구분	양적 적합도	질적 적합도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과 여성 취업자 비중이 1% 미만인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제조 및 환경복원업’, ‘국제 및 외국기관’은 분석에서 제외함.

2) ‘decent work’ 관련하여 제시된 11가지 지표 중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노사관계와 사회적 타협’,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맥락’의 4개 지표는 양적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3) 측정지표에 대한 상세설명은 [별첨1]참조.

2. 산업별 여성 일자리의 특성 비교

1) 양적 적합도(일자리의 '충분성') ☞ 여성취업자의 산업별비중, 취업자증감률, 취업자중 여성비중, 인력부족률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타산업에 비해 여성 취업자 수도 많고 증가율도 높으며, 취업자 중 여성비중도 최고 수준이나, 인력에 대한 수요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고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자 증가율도 매우 높아 여성의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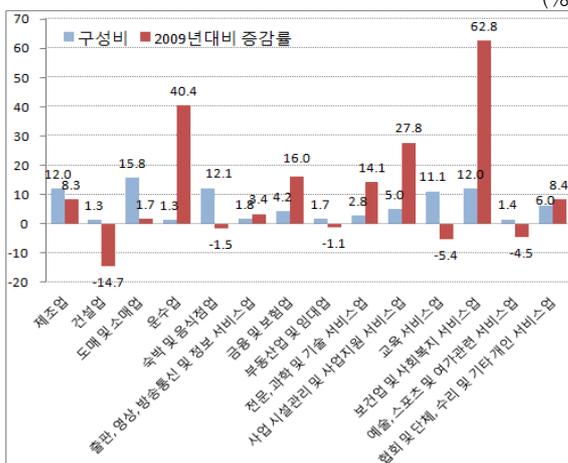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및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취업자의 비중이 10%이상으로 높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09년 대비 증가율이 62.8%에 달해 최고 수준이며 산업별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이 81.1%로 역시 최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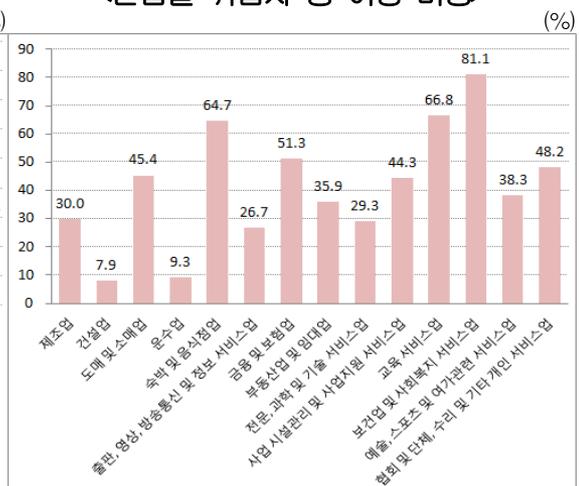
·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남성의 경우에 비해서도 취업자 비중과 취업자 증가율이 높아 여성선호적이며 여성지향성이 뚜렷한 산업임

· '운수업'의 경우에는 여성 취업자 비중은 낮지만 취업자 증가율이 40.4%로 매우 높음

<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및 증감률 > (%)



< 산업별 취업자 중 여성 비중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09, 2013.

주 : 산업별 구성비는 전체산업의 여성취업자를 100%로 할 경우, 각 산업별 구성비임(2013년 기준). 증감률 2009년 대비 2013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13.

주 : 각 산업의 취업자를 100%로 할 경우, 여성 취업자의 비중임.

< 성별 취업자 구성비 및 증감률 비교 >

(%)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산업별 구성비	남	20.1	11.1	13.7	8.8	4.8	3.5	2.9	2.1	5.0	4.5	4.0	2.0	1.7	4.7
	여	12.0	1.3	15.8	1.3	12.1	1.8	4.2	1.7	2.8	5.0	11.1	12	1.4	6.0
	차이	8.1	9.8	-2.1	7.5	-7.4	1.7	-1.3	0.5	2.1	-0.5	-7.1	-10	0.2	-1.4
취업자 증감률	남	9.4	3.7	1.6	11.2	8.1	7.2	9.6	-4.0	24.4	21.8	-3.0	31.3	3.9	8.1
	여	8.3	-14.7	1.7	40.4	-1.5	3.4	16.0	-1.1	14.1	27.8	-5.4	62.8	-4.5	8.4
	차이	1.1	18.4	-0.1	-29.2	9.6	3.8	-6.3	-2.9	10.3	-6.0	2.3	-31.5	8.3	-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09, 2013.

주 : 1. 전산업의 합은 100%로, 본 분석에서 제외한 7개 산업(각주1참고)의 구성비는 남 11.3%, 여11.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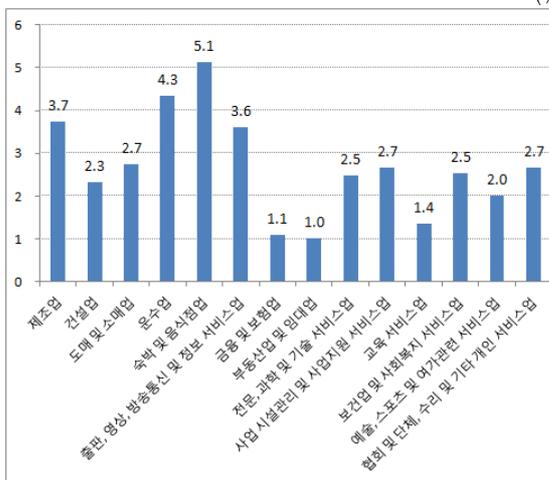
2. 취업자 증감률은 2009년 대비 2013년의 구성비 증감률임. 3. 차이=남성-여성.

- 산업별 인력부족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높고 여성선호도가 최고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평균 수준임

-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5.1%), '운수업'(4.3%), '제조업'(3.7%),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3.6%) 등이며, '부동산 및 임대업'(1.0%) 및 금융 및 보험업'(1.1%), '교육서비스업'(1.4%)의 인력부족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대규모(300인 이상)에서보다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높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부족률이 가장 높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인력부족률은 2.5%로 평균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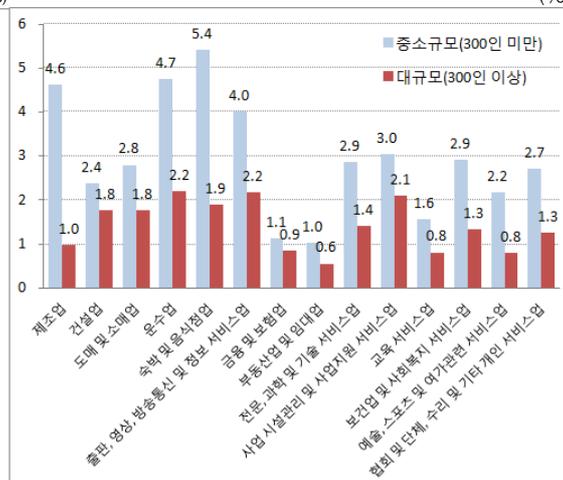
< 산업별 인력부족률 >

(%)



< 산업별 · 규모별 인력부족률 >

(%)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주 : 2009년~2013년 전체 인력부족률 평균.

자료 :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주 : 2009년~2013년 인력부족률 평균.

2) 질적 적합도

① 일자리의 '안정성' \Rightarrow 근속기간, 평균 취업자 연령, 상용직근로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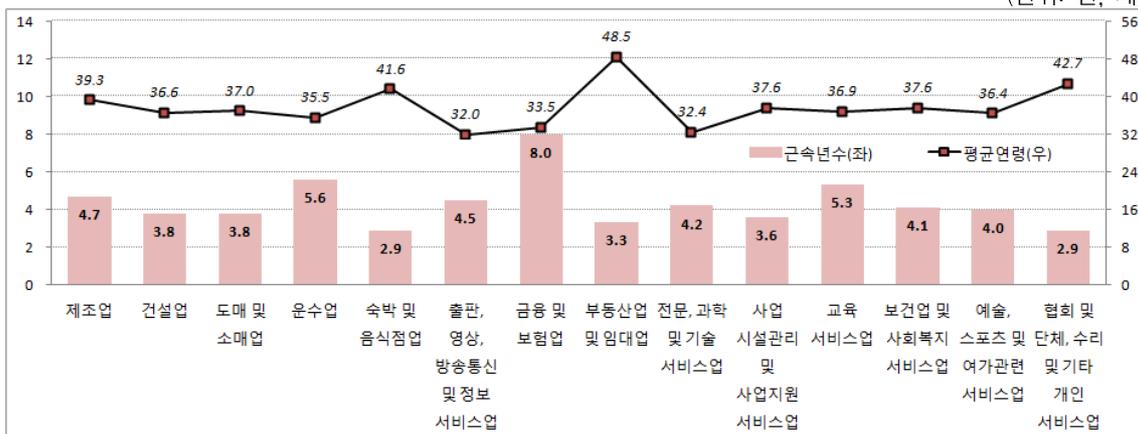
- 여성 취업자의 근속년수는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평균연령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가장 우수하나, 상용직근로자 비중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우수

- '금융 및 보험업'의 근속년수가 가장 길고,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가장 많음

- '금융 및 보험업'은 평균 근속년수가 8년으로 가장 길고,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2.9년으로 가장 짧음
- 취업자 평균연령은 '부동산 및 임대업'이 48.5세로 가장 많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이 32세로 가장 적음
- 일자리 '충분성'이 높았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속년수 4.1년, 평균연령 37.6세로 평균 수준에 그침

< 여성 취업자의 근속년수 및 평균연령 >

(단위: 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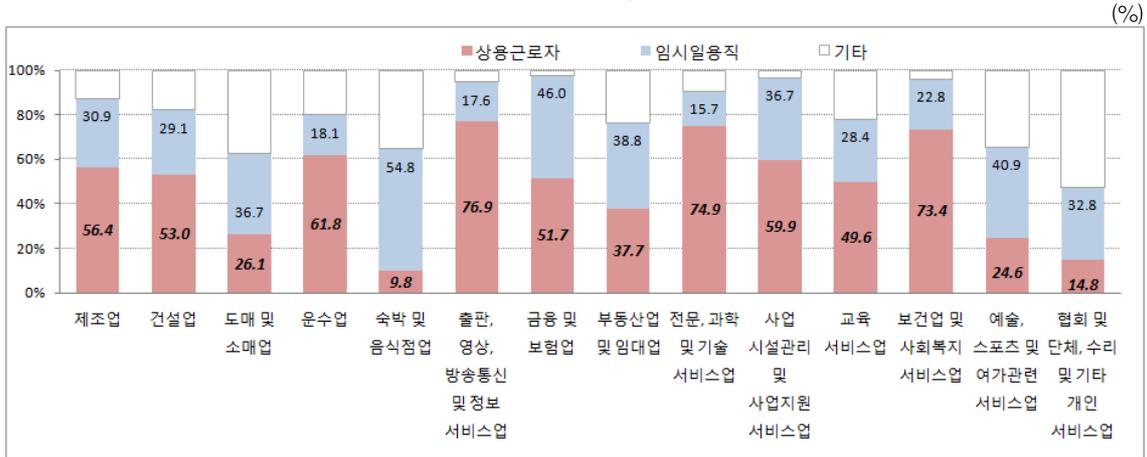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70%이상으로 높음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상용직 근로자는 각각 76.9%, 74.9%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여성의 선호도가 높았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역시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73.4%로 높은 수준임

< 여성 취업자의 상용직·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13.
 주 : 기타는 지역자+고용주+무급가족종사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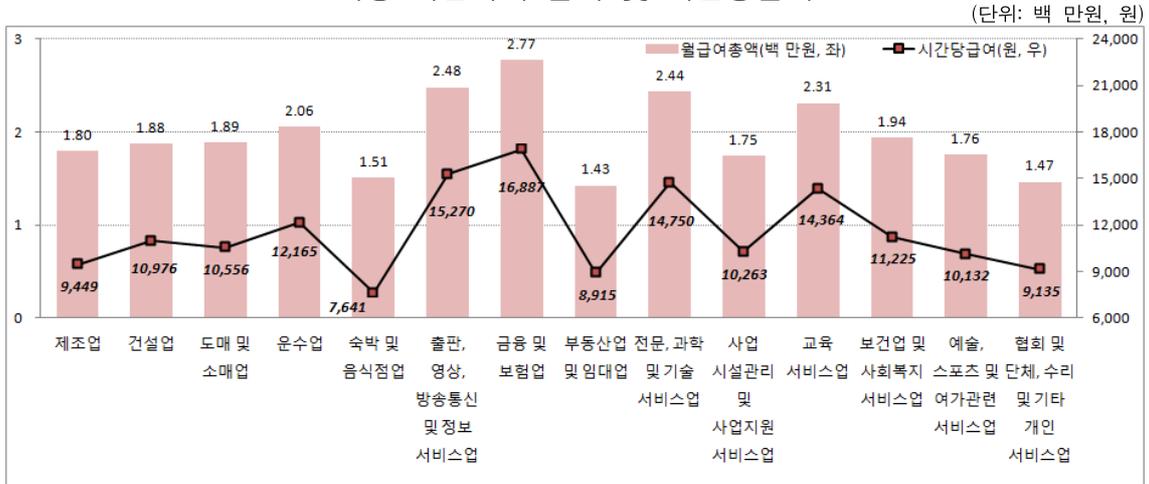
② 일자리의 ‘공정성’ ⇨ 시간당임금, 관리자비중

○ ‘금융 및 보험업’은 급여의 절대적 수준 및 시간당임금이 최고수준이나 여성 관리자 비중이 남성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여성 취업자가 많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관리자 비중이 높은 편

- ‘금융 및 보험업’은 급여 수준이 가장 높으며 근로시간은 낮아 결과적으로 시간당임금이 최고 수준으로 여성 일자리의 공정성이 높은 편임

- ‘금융 및 보험업’의 월급여총액은 277만원으로 가장 많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248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44만원), ‘교육서비스업’(231만원) 등 고학력 전문직 업종에서 대체로 높은 편임
- 시간당임금 역시 ‘금융 및 보험업’이 16,887원으로 최고이며, ‘음식 및 숙박업’은 7,641원으로 최하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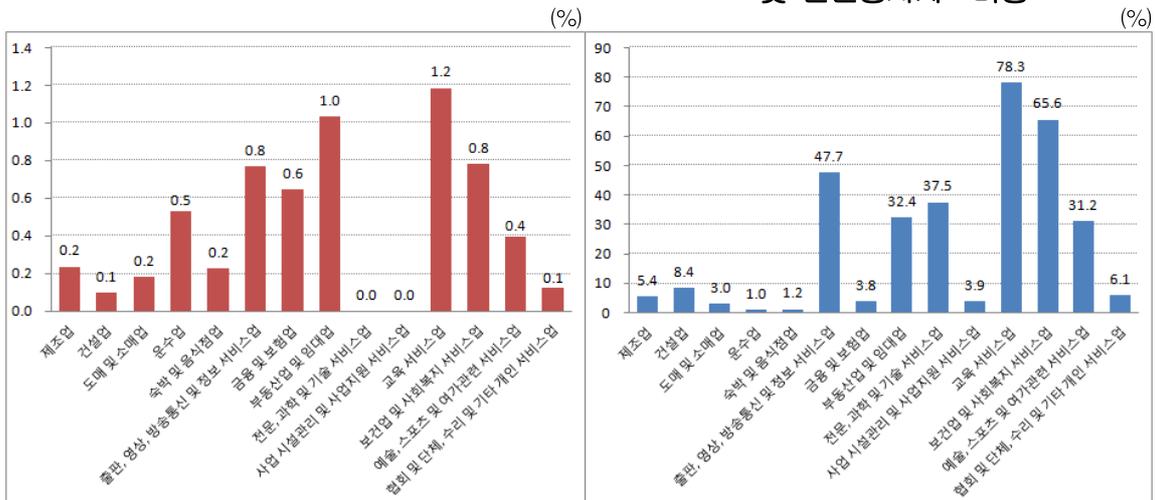
< 여성 취업자의 급여 및 시간당급여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 산업별 여성 관리자의 평균 비중은 0.4%에 불과하며, '교육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여성 관리자 비중이 가장 높고 결과적으로 '공정성'이 가장 높음
 - '교육서비스업'의 관리자 비중은 1.2%로 가장 높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도 1.0%로 높은 수준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 이밖에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도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관리자' 비중 > <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1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13.

③ 일자리의 '균형성' ⇨ 유배우자 비중, '육아+가사'로 인한 이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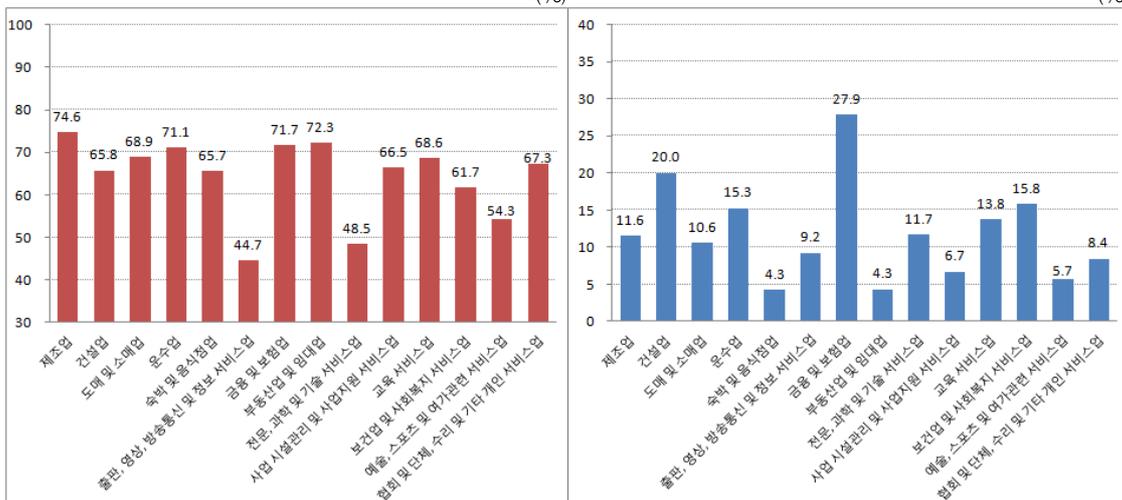
○ '부동산 및 임대업'은 기혼여성 비중이 72.3%로 높고 '육아+가사'로 이직 (4.3%)하는 경우도 가장 낮아 일자리의 균형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음

- 여성 취업자 중 유배우자 비중은 평균 64.4%로 '제조업'이 가장 높은 수준임
 · '제조업'의 유배우자 비중은 74.6%로 가장 높고, '부동산 및 임대업'(72.3%), '금융 및 보험업'(71.7%) '운수업'(71.1%) 등도 70%이상으로 높음
 · 반면 상용직근로자 비중이 높았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유배우자 비중은 45% 수준에 그침

- 여성 취업자 중 '육아+가사'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평균 11.8%이며, '금융 및 보험업'이 27.9%로 이직 여성 3명 중 1명이 해당되어 가장 심각함

- '금융 및 보험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적은 근로시간으로 일자리의 '공정성'이 높은 산업이나 육아나 가사 등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상황임
- 반면 근로조건(급여, 근로시간, 종사상지위)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부동산 및 임대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육아+가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가장 낮아 위의 경우와 대조됨

< 여성 취업자 중 유배우자 비중 > <여성취업자의 이직사유 중 '육아+가사' 비중>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13.
 주 : 유배우자 비중이 높을수록 '균형성'이 높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13.
 주 : 비중이 높을수록 '균형성' 미흡.

④ 일자리의 '성평등성' ⇨ '안정성' 및 '공정성' 지표의 남녀 차이

○ '안정성' 중 근속년수의 남녀 차이는 '교육서비스'가 가장 심각하고, 취업자 평균연령은 '운수업', 상용직 비중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가장 심각

-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및 '교육서비스'이 '안정성' 지표 전반에서 남성과의 차이가 크며, '숙박업 및 음식점업'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음

- 근속년수는 '교육서비스업'이 평균 5.4년 남성보다 여성이 짧아 가장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평균연령은 '운수업'이 남성이 11.1세 더 많으며, 상용직 비중은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7.8%p)이 가장 심각함
-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의 근속년수 차이는 1년으로 가장 적고, 평균연령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3.9세 더 많고, 상용직 비중은 '운수업'에서 여성이 22.8%p 더 많아 안정적임

< 안정성 및 공정성 지표의 성별 차이 >

(단위: 년, 세, 백만원, 만원, %p)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정보통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안정성	근속년수(년)	2.7	1.6	2.0	1.9	1.4	2.5	3.3	1.0	2.6	1.9	5.4	1.9	1.5	2.5
	평균연령(세)	0.4	5.9	1.7	11.1	-3.9	5.4	6.5	3.5	7.0	4.1	8.6	2.9	3.3	-1.1
	상용직비중(%p)	19.3	-22.4	7.2	-22.8	5.7	6.7	22.0	0.6	5.3	5.9	11.1	-4.9	4.0	27.8
공정성	월급여총액(백만원)	0.93	0.87	0.94	0.35	0.45	0.97	1.17	0.61	1.2	0.63	1.37	1.48	0.79	0.9
	시간당급여(만원)	0.44	0.47	0.49	0.08	0.23	0.55	0.71	0.05	0.7	0.25	0.78	0.79	0.37	0.37
	관리자비중(%p)	2.4	4.0	1.3	0.4	2.0	1.5	8.4	3.0	2.1	1.5	2.7	0.7	0.5	0.7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13.

주 : 각 지표값은 (남성-여성) 값이며, 강조체는 상위 3개 값이며 이탤리체는 하위 3개 값임 각 지표의 남성 및 여성의 원래값은 [별첨2] 참고

- '공정성'은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교육서비스업'에서 남성에 비해 특히 취약하며, '운수업'이 모든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가장 적음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월급여총액은 남성에 비해 148만원만큼 적고, 시간당급여는 7,900원 더 적어 상당히 취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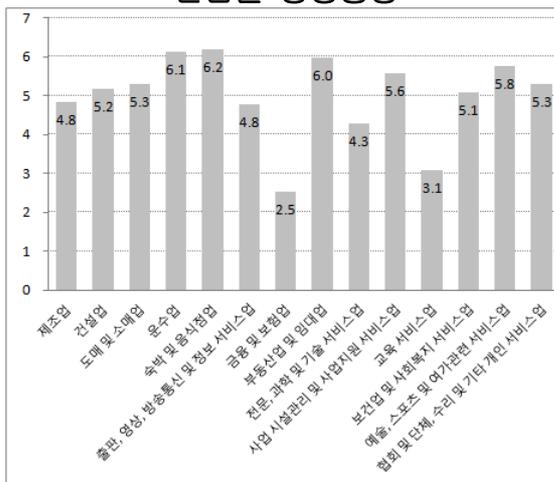
- 관리자 비중의 남녀 차이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가장 커 남성이 8.4%p 만큼 더 많음
- 한편, '공정성'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업종은 '운수업'으로 모든 지표에서 남성과의 차이가 가장 적음

○ 종합해 보면 '성평등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여성 일자리는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순임

- 일자리 '안정성'의 남녀 차이가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며, 일자리 '공정성'의 남녀 차이는 '운수업'에서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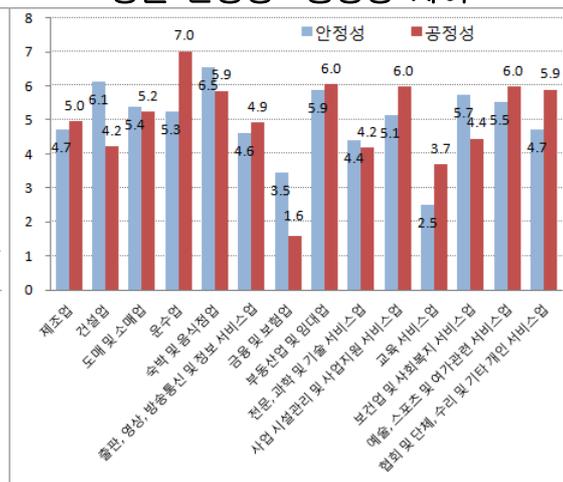
- 일자리의 '안정성'(근속연수, 취업자 평균연령, 종사상지위)에서의 '성평등성'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뛰어나고 '교육서비스업'에서 가장 취약함
- 일자리의 '공정성'(시간당임금, 관리자비중)에서의 '성평등성'은 '운수업'에서 가장 높고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낮음
- 종합하면 '성평등성'은 대체로 저학력 저숙력 산업에서 높고 고학력 전문직 업종에서 대체로 낮다고 할 수 있음

< 산업별 성평등성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성별 안정성과 공정성 차이의 합을 10 점 만점으로 환산(클수록 평등함).

< 성별 안정성·공정성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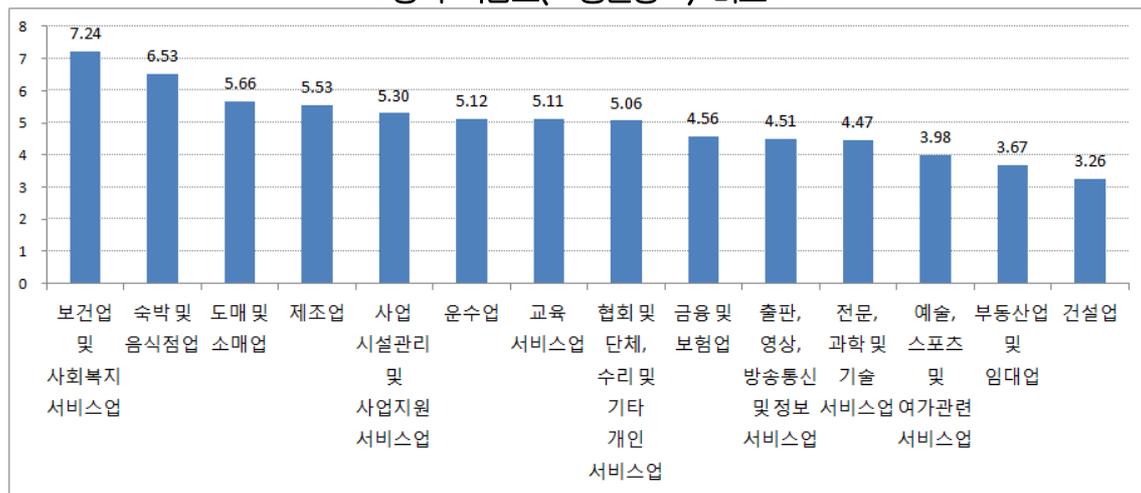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안정성 및 공정성 각지표의 성별차이를 10점만점으로 환산(클수록 평등함).

3. 산업별 여성 일자리의 적합도 평가(양적·질적 적합도 종합)

① 양적 적합도(‘충분성’)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최고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현재 일자리 수, 증감률, 취업자 중 여성 비중, 인력수요를 종합할 때 양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건설업’이 최하위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여성 취업자 증감률 62.8%, 취업자 중 여성 비중 역시 81.1%로 최고수준이며, 현재 여성 일자리 수 비중도 12%로 높음
-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양적 적합도가 높는데, 인력부족률이 5.1%로 가장 높은데서 기인함
- ‘건설업’의 인력부족률은 2.3%이지만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저조하며, 취업자 중 여성 비중이 7.9%에 불과해 양적으로 매우 취약함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인력부족률이 1%로 최하이며 일자리 수 비중도 1.7%로 낮은 상황임

< 양적 적합도(‘충분성’)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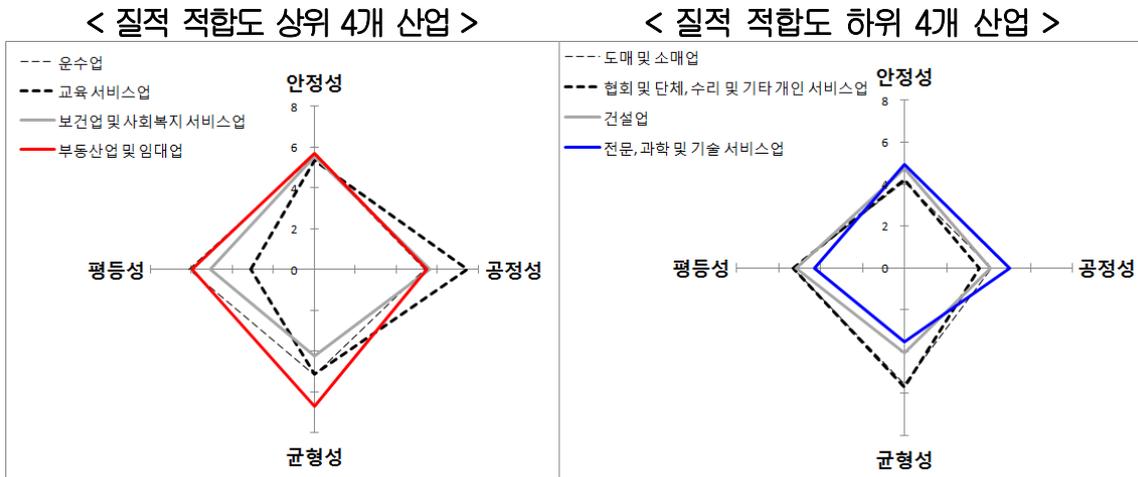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구성지표(산업별 여성 취업자 구성비, 취업자 증감률, 인력부족률)값을 표준화한 뒤,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각 차원의 평균값=5).

② 질적 적합도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최고

- 질적 적합도 최고의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4개 질적 적합도 차원 중 특히 ‘균형성(일가정양립)’이 최고 수준임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양적 적합도('충분성')은 최하 수준임에 비해 '공정성'을 제외한 3가지 질적 적합도 차원 모두가 최상위권임
- '운수업'은 상용직 비중이 높고 근속년수가 길어 '안정성' 수준이 높으며, 남녀 공정성 차이도 적어 결과적으로 높은 질적 적합도를 보임
- 이밖에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전체적으로 질적 적합도가 높은 수준임
-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균형성'과 '성평등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져 질적 적합도 최하위 업종으로 나타남



< 여성 일자리의 질적 적합도 종합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정보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협회/단체,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질적 적합도	5.95	5.57	5.26	5.12	5.07	5.05	5.01	4.89	4.83	4.80	4.79	4.70	4.53	4.45
안정성	5.69	5.60	5.35	5.53	5.57	5.07	4.98	3.94	6.11	4.11	4.14	4.20	4.76	4.95
공정성	5.48	5.38	7.45	5.63	3.91	6.82	3.65	3.35	7.05	4.47	4.14	3.58	4.08	5.01
균형성	6.68	5.17	5.13	4.24	5.96	3.52	5.84	6.08	3.62	4.85	5.57	5.70	4.08	3.55
성평등성	5.97	6.13	3.09	5.09	4.84	4.77	5.56	6.19	2.53	5.75	5.30	5.31	5.17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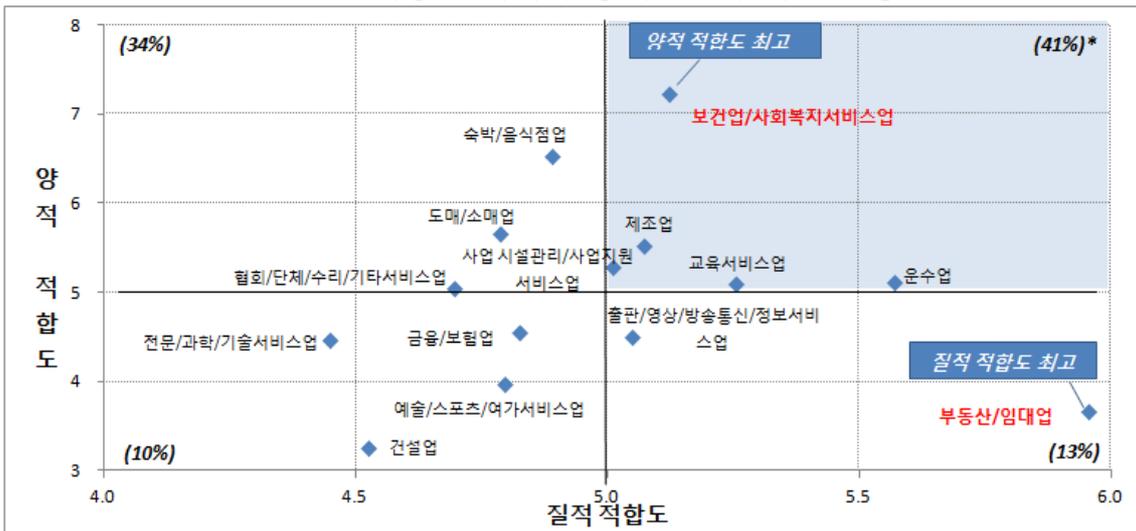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주 : 1. 각 차원별 구성지표값을 표준화한 뒤,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각 차원의 평균값=5).
- 2. 질적 적합도는 4개 차원의 합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③ 양적·질적 적합도 종합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일자리의 양적·질적 수준을 모두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최고의 여성 일자리임

< 산업별 여성 일자리의 양적·질적 적합도 종합 >



- 주 : 1. 양적 적합도(충분성): 여성 취업자의 사업별 비중, 증기율, 취업자 중 여성비중, 인력부족률 종합
- 2. 질적 적합도: 안정성, 공정성, 균형성, 성평등성 종합
- 3. 4분면의 기준은 각 적합도 차원의 평균값(5점)임.
- 4. *2013년 총 여성취업자 10,494명 중 각 분면의 여성 취업자 비중임.

< 산업별 여성 일자리의 적합도 종합 >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예술, 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건설업
전체	5.54	5.50	5.48	5.23	5.22	5.17	5.07	4.96	4.94	4.77	4.77	4.63	4.45	4.27
양적 적합도	7.24	3.67	5.12	5.11	6.53	5.53	5.30	5.66	4.51	4.56	5.06	3.98	4.47	3.26
질적 적합도	5.12	5.95	5.57	5.26	4.89	5.07	5.01	4.79	5.05	4.83	4.70	4.80	4.45	4.5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주 : 1. 각 차원별 측정지표값을 표준화한 뒤,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각 차원의 평균값=5).
- 2. 질적 적합도는 4개 차원의 합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임.

- (양적 적합도 高/질적 적합도 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제조업'은 질적 및 양적 적합도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상위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최고의 일자리로 나타났으나, 질적 적합도 차원 중 상대적 '공정성'이 다소 취약한 수준으로 특히 남녀간 급여차이의 축소가 요구됨
 - '운수업'은 현재 여성 취업자 비중은 낮으나 여성 취업자 증가율 및 인력 부족률이 높고 특히 남녀간 '공정성' 차이가 적어 '성평등성'도 우수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음
 -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공정성'에서 최고 수준이나 '성평등성'은 최하 수준으로 부분적으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요구됨

- (양적 적합도 高/질적 적합도 低)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해당되면, 양적으로 일자리의 '충분성'은 높으나 타산업에 비해 특히 일자리의 '안정성'이 취약함
 - '숙박 및 음식점업'은 타산업에 비해 일자리의 양적 '충분성'도 뛰어나고 질적으로 '균형성'과 '성평등성'이 매우 높아 여성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공정성'과 '안정성'이 최하위 수준으로 여성 일자리로서 양면성을 가짐

- (양적 적합도 低/질적 적합도 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양적 적합도는 떨어지나 질적 적합도가 평균 이상인 업종임
 -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적합도 종합 점수가 최고수준으로, 질적 적합도는 가장 높으나 양적 적합도는 반대로 최하 수준인 극단적인 양상을 보임.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질적 적합도가 평균 이상이나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성'은 최고이나 '균형성' 최하 수준의 특징이 있음

- (양적 적합도 低/질적 적합도 低) 여성 일자리로서 적합도가 가장 낮은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고학력 전문직 업종과 '건설업', '협회, 단체, 수

리 및 기타서비스업'이 해당됨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균형성' 및 '성평등성'에 있어서 최하 수준으로 일자리에서 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금융 및 보험업'은 높은 급여수준과 근속년수가 최장으로 '안정성'과 '공정성'에서 최고이나 마찬가지로 '균형성' 및 '성평등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져 질적 차원에서 양면적인 특성이 보임

4. 시사점

- 업종별 여성 일자리의 양적 및 질적 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강·약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 업종별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이 요구됨
- (성별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의 양적 확대 유도) 소위 '여성업종' 또는 '남성업종' 등의 업종간 편견 해소를 여성 일자리의 진입장벽 축소
 - 양적 적합도가 취약한 대부분의 업종은 절대적인 산업 규모의 크기뿐만 아니라 업종별 여성 취업자의 선호도 영향을 크게 받게 됨
 - 하지만 현재 양적 적합도가 최상위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향후 시장 포화상황에서 여성 고용측면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취업자 중 여성 비중 50%'를 목표로 하여, 산업별 여성 일자리 개발 필요
- (일자리 질적 편차 축소) 여성 일자리의 질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하한선 규정 필요
 - 특히 '성평등성'과 '균형성'은 다른 질적 차원에 비해 업종간 편차가 큰 편임
 - 이러한 편차는 근로에 대한 상대적 불만족도를 높여 근로의욕을 낮추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기혼여성(유자녀여성)의 재진입 장벽을 낮추고, 남녀 시간당 평균임금 격차의 상한선을 지정하여 상대적 박탈감 축소

- (여성친화적 일자리의 재정의) 일자리의 일정한 질적 수준과 성평등성이 전제되지 않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무의미
 -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일가정양립 이전에 일자리의 공정성, 안정성 등 질적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일자리에서의 성평등성이 보장되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는 것 역시 여성 친화적 일자리의 필수 요소임

- (여성 일자리로서 '고학력 전문직' 업종의 재점검) 고학력 전문직 업종에 대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적합도 개선으로 고학력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제고
 - 고학력 전문직 업종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고용률이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결과를 뒷받침함
 -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이 저학력 저숙련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고학력 전문직 업종이 소외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양적 취약성으로 고학력 전문직 업종의 질적 취약성이 충분히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접근법 필요(ex. 전문직 재취업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세금혜택 등), 전문직 재취업 여성을 위한 '인턴십' 제도 등)

- (저학력 저숙련 업종의 일자리 '질'적 개선에 집중) 일자리의 양적 '충분성'이 높으나 질적으로 취약한 업종이 '양질의 여성 일자리' 개발의 시작점
 - 여성의 집중도가 높고 양적으로 충분한 대표적인 업종이지만 질적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점업'은 일자리의 '안정성' 및 '공정성'에서 가장 심각한 업종임
 - 고용주나 취업자 모두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과 '공정성' 제고를 지향함

고승연 연구위원 (2072-6308, yeon@hri.co.kr)

[별첨1] 분석지표 요약

분석차원		각 차원별 측정지표	자료
양적 적합 도	'충분성'	-취업자 비중 -취업자 증감률 -취업자 중 여성 비중 -평균 인력부족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조사 2013 • 경제활동조사 2009, 2013 • 경제활동조사 2013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09~2013 평균부족률
	'안정성'	-취업자 평균연령 -근속 기간 -상용직근로자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 경제활동조사 2013
질적 적합 도	'공정성'	-시간당임금 -관리자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 경제활동조사 2013
	'균형성'	-취업자 중 유배우자 비율 -이직사유 중 '육아+가사'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조사 2013 • 경제활동조사 2013
	'성평등성'	-남녀 '안정성' 지표 차이 -남녀 '공정성' 지표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지표들의 남녀 차이

[별첨2] 남녀 일자리의 공정성 및 안정성 차이

< 성별 총급여액 및 시간당급여 비교 >

(단위: 백만원, 만원)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월 여 액 총 (백만원)	남	2.73	2.75	2.82	2.41	1.95	3.45	3.95	2.04	3.64	2.38	3.68	3.42	2.55	2.36
	여	1.8	1.88	1.89	2.06	1.51	2.48	2.77	1.43	2.44	1.75	2.31	1.94	1.76	1.47
	차이	0.93	0.87	0.94	0.35	0.45	0.97	1.17	0.61	1.2	0.63	1.37	1.48	0.79	0.9
시간 당 임 금 (만원)	남	1.39	1.56	1.55	1.29	0.99	2.08	2.4	0.94	2.18	1.27	2.21	1.91	1.38	1.28
	여	0.94	1.1	1.06	1.22	0.76	1.53	1.69	0.89	1.48	1.03	1.44	1.12	1.01	0.91
	차이	0.44	0.47	0.49	0.08	0.23	0.55	0.71	0.05	0.7	0.25	0.78	0.79	0.37	0.37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주 : 차이=남성-여성.

< 성별 '관리자' 비중 및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비중 비교 >

(%)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관리자	남	2.6	4.1	1.5	0.9	2.2	2.2	9.1	4.1	2.1	1.5	3.9	1.5	0.9	0.8
	여	0.2	0.1	0.2	0.5	0.2	0.8	0.6	1.0	0.0	0.0	1.2	0.8	0.4	0.1
	차이(%p)	2.4	4.0	1.3	0.4	2.0	1.5	8.4	3.0	2.1	1.5	2.7	0.7	0.5	0.7
관리자+전문가+종사자	남	14.6	13.1	10.1	3.3	2.6	68.1	24.5	41.3	67.0	8.3	75.4	56.6	30.0	16.4
	여	5.4	8.4	3.0	1.0	1.2	47.7	3.8	32.4	37.5	3.9	78.3	65.6	31.2	6.1
	차이(%p)	9.2	4.7	7.1	2.4	1.3	20.4	20.7	8.9	29.4	4.4	-2.8	-8.9	-1.2	10.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13.
주 : 차이=남성-여성.

< 성별 근속년수 및 평균연령 비교 >

(단위: 년, 세)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근속년수(년)	남	7.4	5.4	5.8	7.5	4.3	7.0	11.3	4.3	6.8	5.5	10.7	6.0	5.5	5.4
	여	4.7	3.8	3.8	5.6	2.9	4.5	8.0	3.3	4.2	3.6	5.3	4.1	4.0	2.9
	차이	2.7	1.6	2.0	1.9	1.4	2.5	3.3	1.0	2.6	1.9	5.4	1.9	1.5	2.5
평균연령(세)	남	39.7	42.5	38.7	46.6	37.7	37.4	40.0	52	39.4	41.7	45.5	40.5	39.7	41.6
	여	39.3	36.6	37	35.5	41.6	32	33.5	48.5	32.4	37.6	36.9	37.6	36.4	42.7
	차이	0.4	5.9	1.7	11.1	-3.9	5.4	6.5	3.5	7.0	4.1	8.6	2.9	3.3	-1.1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주 : 차이=남성-여성.

< 성별 종사상지위별 비중 비교 >

(%)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상용직	남	75.7	30.6	33.3	39	15.5	83.6	73.7	38.3	80.2	65.8	60.7	68.5	28.5	42.6
	여	56.4	53	26.1	61.8	9.8	76.9	51.7	37.7	74.9	59.9	49.6	73.4	24.6	14.8
	차이(%p)	19.3	-22.4	7.2	-22.8	5.7	6.7	22.0	0.6	5.3	5.9	11.1	-4.9	4.0	27.8
임시용직	남	12.1	45.1	21.6	11.2	37.7	7.8	21.6	26.2	5.3	28.6	20	16.2	32.9	23.5
	여	30.9	29.1	36.7	18.1	54.8	17.6	46	38.8	15.7	36.7	28.4	22.8	40.9	32.8
	차이(%p)	-18.9	16.0	-15.1	-6.9	-17.1	-9.8	-24.3	-12.6	-10.3	-8.2	-8.5	-6.5	-8.0	-9.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2013.
주 : 차이=남성-여성.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5월 22일	5월 29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55	2.47	-0.08%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1.37	101.55	0.18¥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687	1.3607	-0.0080\$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543	16,699	156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338	14,657	31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5	2.81	-0.04%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24.2	1,020.6	-3.6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15.6	2,012.3	-3.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5월 22일	5월 29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4.00	103.56	-0.44\$
	Dubai	107.99	100.38	107.88	106.94	106.33	-0.61\$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8.34	308.05	-0.29\$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8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7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5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